

“베토벤 소나타 32곡 다 들려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서현일씨, 내일부터 내년 5월까지 9차례 연주
“강인함 뒤 감춰진 여리고 순수한 베토벤 내면 보여줄 것”

한 작곡가의 작품을 ‘모두’ 연주하는 전곡(全曲) 연주회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로망이다. 작곡가가 평생을 두고 만든 작품은 그의 예술 가치 뿐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옷이 입고 있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베토벤(1770~1827)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가 그 꿈의 무대다. 베토벤은 스물다섯이던 1795년 피아노 소나타 1번을 작곡한 이래 1822년에 작곡한 마지막 곡까지 모두 32곡의 소나타를 남겼다. ‘비창’(8번), ‘월광’(14번), ‘템페스트’(17번), ‘발트슈타인’(21번), ‘열정’(23번), ‘고별’(26번) 등 클래식 팬들이 사랑하는 곡들이 많다.

젊은 피아니스트 서현일(31)씨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에 나선다.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시작되는 여정은 6월 17일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모두 9번의 연주회로 이어진다. 첫 연주회에서는 소나타 1번~3번을 들려준다.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서씨는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예고 재학 중 독일로 건너 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거쳐 10년간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베토벤 전곡 연주회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꿈이었다.

“전곡 연주는 피아니스트들에게 정말 큰 공부 가 되요. 모든 아티스트들의 로망이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도전하는 것 자체로도 영광스럽죠. 물론 뼈를 깎는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 하구요. 피아노를 단지 ‘플레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그 작곡가의 곡을 연구하고, 공부한 게 연주에서 보여지고 연주자를 통해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재해석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자주 연주하면서 전곡 연주회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교수님과 시집에 대해서도 상의를 많이 했구요. 또 하나 최근에 전곡 연주회 붐이 일고 있지만 광주에서는 거의 열

리지 않아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씨는 그래서 조금 벼차기는 하지만 연주 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올해(5. 6. 9. 11. 12월)와 내년 상반기(2~5월)까지 짧은 시간에 완주할 예정이다.

서씨는 32곡의 소나타를 작곡된 순서 그대로 연주한다. 서씨가 지금까지 무대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곡은 19곡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마지막 곡인 ‘32번’이다.

“전곡 연주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다음 연주회까지 그 동력이 계속 이어지죠. 절대적인 기준도 중요한데, 전 제 자신만의 베토벤을 들려주고 싶어요. 관객들의 평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당초 가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연주회가 앞당겨지면서 서씨는 밤 늦도록 스튜디오에서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 그는 올 2월에 결혼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했다.

“흔히 베토벤의 음악을 무겁고 어둡고 비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외모도 험상궂고 삶 역시 개인적 아픔들이 많았구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베토벤의 내면이 정말 순수하고 여리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이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하잘아요. 바깥으로 보이는 어두운 모습 뒤에 감춰진 베토벤의 여리고, 순수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베토벤의 32개 소나타라고 생각합니다.”

서씨는 앞으로 모차르트 소나타(19곡), 쇼팽의 에튀드(24곡), 바흐 평균율(12곡) 전곡 연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 안톤 루빈슈타인 국제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그는 대전시향, 광주시향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고,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 등에도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음악인상 신인상을 받았다. 티켓 가격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8717-47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 남화산수화 산증인’ 문장호 화백 별세

실경·관념 재조합...독창적 회화세계



‘영강범영(映江帆影)’

전통화조·공필 화법도 능해

남화의 대표작가인 한국화가 희재(希哉) 문장호 화백이 12일 오전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50년대 말 이후 호남 남화산수화의 산증인인 고인은 전통 남화산수화의 필법과 정신을 따르면서 지속적인 탐구정신으로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는 전통과 실경의 조화 속에서 새 남도화풍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무등산, 설악산, 백도, 거문도, 진도, 관매도, 울릉도 등 주변 산하와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현장스케치 또는 사진으로 포착한 실경과 관념을 재조합해 화폭에 담았다.

나주 다시면에서 태어난 문장호 화백은 17세에 의해 허백련 선생 문하에 들어가 스승의 필법을 따르면서 자기의 기질과 화풍에 맞는 ‘모아준밥’이라는 개인의 독창적인 준법을 개발, 전통화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옛 대가들의 정신세계를 모르면 뿌리를 잃게 되

고 그렇다고 새것 찾기를 게을리하다가가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고인의 평생 지론이었다.

또 힘찬 필치로 계류(溪流)의 느낌을 잘 표현했으며, 산수 외에도 전통화조와 정교한 공필법(工筆法)에도 능했다.

특히 의재 선생이 중심이 되어 전통 남종화의 부흥을 위해 만든 연진회(鍊眞會)와 연진미술원을 이끌면서 제자양성과 남종화 활성화에도 힘썼다. 김대원, 강현채, 고화서, 박희서, 김인선, 이동영, 최현철, 홍성국씨 등이 고인의 제자다.

문장호 화백은 한국화협회 창단 발기인,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조대와 전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후진양성과 한국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대한민국 육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3남1녀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은 14일 오전 9시, 장지는 광주 영락공원이자. 문의 062-220-33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평범한 공간, 빛을 만나...

광주신세계갤러리 ‘숨쉬는 빛’전

“하나의 영상 작품이 된 갤러리.” 벽과 벽 사이의 틈, 문, 문지방,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실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숨을 쉬듯 움직이거나 뒤돌리면서 곧 비현실적인 공간이 된다. 영상을 통한 빛과 움직임의 경계선에서 생각의 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색을 만날 수 있다. 일상의 색을 제거한 공간이 하루의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 등 영상을 통해 새로운 색과 소리로



신성한 작 ‘Zone-Gong’

생동감을 갖게 되면서 시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6월4일까지 열리는 ‘숨

쉬는 빛’전에서 만날 수 작가 김민정씨의 작품 ‘뒤돌린 방’과 신성한씨의 작품 ‘Zone-Gong’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각각의 표현기법으로 빛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김민정, 나인주, 노해음, 박상화, 신성한, 양승수, 정정주, 프로젝트 그룹 옆(옆) 등 전국 영상 및 설치 작가 8명이 초대됐다.

작가들은 환상적인 분위기와 환영 이미지로 관객들을 가상의 세계로 이끈다. 특히 관객들이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작품들도 전시되어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관객들이 작품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큰 1%, 가족!

광주여성재단 오늘 인문학 강좌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 5월 행사가 13일 오전 10시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5월 강좌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1%, 가족!’으로 정선주(정선주 심리상담소)씨가 강의한다.

정 선장은 이번 강좌에서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소신 있는 부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강의는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05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사업’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16일 빛고을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2014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사업’모집공고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내용, 광주지역 문화·예술동아리연합회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안내한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20여 개 동아리에게 각 1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4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빛고을 Sportsclub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선정!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http://gbsc.sportal.or.kr

광주빛고을 스포츠클럽은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레저문화보급을 위해 설립된 주민편의 스포츠클럽입니다.

모집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연령별 맞춤형 종합 스포츠 클럽 운영
회원 선착순 모집

종 목	요 일	시 간	장 소	종 목	요 일	시 간	장 소
탁 구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월, 수, 금	오후 4시~5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오후 9시 30분~12시 30분	효남베드타운체력스포츠	
	화, 목	오전 10시~12시		오전 8시~10시	고신래권도장		
	오전 2시~6시	화, 목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고신래권도장		
	수, 금	오전 10시~12시		월, 수, 금	오후 3시~4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토, 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베드민턴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토, 일	오후 3시~5시	북구종합체육관	
		오전 2시~6시			오전 7시~9시	북구종합체육관	
	화, 목	아간 7시~9시		토, 일	오후 3시~6시	북구종합체육관	
	화, 목	아간 7시~9시		신창중학교 강당	토, 일	오후 3시~6시	북구종합체육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00번지(구 동림동 10-1번지) 다목적체육관
 TEL. (062)714-2002

광주 소리큐

광고실의월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